

“구례 섬진강변 맛좋은 ‘던데들 수박’ 맛보러 오세요”



43농가 23ha 규모 시설하우스 재배...연간 10억원 소득 올려
문척면 수박농가·화양마을, 20일부터 28일까지 체험행사

구례군 섬진강변 던데들에서는 수박 수확이 한창이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로 94%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다. 더운 여름에 느끼기 쉬운 갈증을 해소해 주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구례 던데들에서는 43농가가 23ha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친환경 재배농가가 17농가 9.1ha이며 면적과 농가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 적용한다. 구례수박은 5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7월 초순까지 생산된다. 광주, 순천, 여수 공판장에 출하하며 친환경학교급식과 아이쿱생협에 납품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1,132톤이다. 금년 4월 이상기온으로 수박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박 농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량을 평년수준만큼 회복했다.

문척면 수박농가와 화양마을 주민들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화양마을에서 ‘수박도 맛보고 달팽이도 구경하자!’ 라는 주제로 체험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박 서리 체험, 왕달팽이 사육환경 만들기, 화양마을 칙겔러리 미술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직거래는 문척수박영농조합법인(☎ 010-3001-2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월봉습지서 멸종위기 ‘꼬마잠자리’ 올해 첫 관찰

성충이 1.5cm에 불과...서식지 보존 위해 나서



곡성군 월봉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가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꼬마잠자리는 자란 성충의 크기가 1.5 ~ 1.7cm밖에 되지 않는다. 10cm 가량인 국내에서 가장 큰 잠

수잠자리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계속해 개체 수가 줄어 쉽게 잡히기 어려워졌다. 월봉습지는 휴경지 논이 습지로 변한 곳이다. 습지 상단에 둌방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량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꼬마잠자리, 수달, 원앙, 황조롱이,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수변 식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꼬마잠자리 서식처로서의 생태계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곡성군은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이 우수한 생태숲을 조성하고, 꼬마잠자리와 물방개 서식환경 개선 및 복원을 추진 중이다.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꼬마잠자리의 천연기념물 및 월봉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꼬마잠자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월봉습지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총력’

지역특화 맞춤형통한 대숲맑은 담양쌀 브랜드 가치 제고



담양군이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쌀을 생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지역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수행한 실증시험 결과 외관 및 성분, 품위, 식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중 가장 우수한 1계통(담양1호)을 최종 선발해 작년부터 4개 지역(담양, 나주, 전주, 익산)에서 지역응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우수한 1계통(담양2호)을 선발해 지역응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좋을 경우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할 계획이다. 이병창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담양만의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명품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쌀 이외에도 죽, 향, 메리퀸 등 자체개발한 쌀기 신 품종을 통해 ‘담양 쌀기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블루베리, 딸론 등의 품종개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벼 드문모심기 현장연사회 개최

쌀 생산비 절감·생력화 재배로 농가 소득향상 기대



화순군은 지난 2일 춘양면 화림 2단지 들판에서 농업인,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농주농협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벼 드문모심기 연사회를 개최했다. ‘드문모심기’는 모판에 과중량을 늘리고(250~300g), 드물게 모

내기(37~50주/평, 주당본수 5개 내외)해 사용되는 모판의 수를 줄여 육묘·이앙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군은 드문모심기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2개소, 30ha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행재배와 생육상황, 수확량 비교를 통해 화순 지역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연사회는 3.3㎡당 37주, 45주, 50주를 식재해 비교 시연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문모심기와 같은 생력화 재배기술을 신속하게 확산시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나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1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

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은 7.37% 상승했다. 나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빛가람동 소재 필지 248만원/㎡, 최저지가는 문평면 국동리 소재 필지 367

원/㎡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평
일

범
상

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